

# “폭설이 고마워”

## 車정비업소·찜질방·모텔 등 불황 속 호황 ‘즐거운 비명’

연일 내리는 눈과 영하의 날씨로 회사원들의 귀가시간이 빨라져 도심은 밤이면 썰렁해진다. 그러나 빙판길 교통 사고나 외출하기엔 불편한 날씨, 눈 내리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는 업종들도 상당수 있다.

### ‘눈 특수’ 손님 크게 늘어

밀려드는 사고 차량으로 쉴 틈 없는 자동차 정비업소, 예약 없이 식사가 불가능한 패밀리 레스토랑, 밤이 오기 전에 만원이 되는 모텔,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 모텔 등 이들에겐 눈이 ‘고마운 손님’이다. ‘눈’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표 업종은 자동차 정비업소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배 이상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유동 A자동차공업사의 경우 평소 하루 평균 5대의 사고 차량이 수리를 맡기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빙판길 접촉사고 차량이 늘면서 10대 정도씩 들어오고 있다. 수일 동안 눈이 내리면서 이른 귀가로 인해 식당과 술집 등은 평소보다 손님이 줄어든 반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찜질방은 되레 북적거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 B패밀리 레스토랑은 오후 6시 예약이 모두 끝나고, 아파트단지 주변의 찜질방도 밤이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찾아드는 가족단위 손님들로 만원이다.

피자나 치킨집은 저녁 이후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지만 빙판길에 오 토바이 배달이 원활치 못한 탓에 주문량을 소화하기 힘들어 매출 신장은 20%에 머물고 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 C피자집 주인은 “주문은 평소의 2배 가량이지만 길이 미끄러워 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밤 10시가 되면 아예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눈이 10cm 넘게 온 지난 12일 광주 지하철의 경우 5만8천명이 탑승해 평소와 비교해 이용객 수가 16%나 증가하는 등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모두 승객이 10~20% 가량 늘었다. 특히 택시는 아침 출근을 전한 밤에 예약하는 승객들이 많아 다른

택시에 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눈 내리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연인들 때문에 모텔들도 호황이다. 목 좋은 모텔들은 밤 10시만 해도 손님들로 꽂힌다.

### 백화점은 매출 ‘뚝’

반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백화점들은 눈 때문에 매출이 더 떨어졌다. 첫 눈오는 날이나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는 평소 매출의 수배에 해당하는 ‘대박’을 내지만 그 외에는 자가용 운전자가 줄기 때문에 주말에도 20% 정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채희호기자 chae@kwangju.co.kr

# “폭설이 미워”

## 광주·전남 나흘째 눈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 나흘째 눈이 내리면서 교통·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내린 눈이 빙판으로 변해 긴급 교통운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광주와 함평, 영광지역 등에 1~3cm 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다”며 “이번 추위는 15일 오전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내린 눈은 광주가 10.5cm로 가장 많았고, ▲영광 9.8cm ▲북포 3.3cm ▲순천 0.6cm 등이다.

이날 하루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20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 32명이 부상을 당했다. 낙상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새벽 1시께 서구 쌍촌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70대 남성이 새벽 5시께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서구 풍암동 D아파트 앞길에서 60대(50)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 입는 등 하루에 7건의 낙상사고로 7명이 다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통·낙상사고 잇따라=이날 새벽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인근 도로에서 ‘광주 77바23x호’ 시내버스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 사고가 발생, 이 일대 주택가 20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으나 20여 분만에 복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공산구 신촌동 장암 버스승강장에서 160번 버스(운전자 이모씨·45)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정차 중인 19번 시내버스(운전자 김모씨·42)를 추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하루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20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 32명이 부상을 당했다. 낙상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새벽 1시께 서구 쌍촌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70대 남성이 새벽 5시께 아파트 앞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고, 서구 풍암동 D아파트 앞길에서 60대(50)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 입는 등 하루에 7건의 낙상사고로 7명이 다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원침



다 좋은 건축 상담사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신청

## 순천시 전공노 파면·해임 공무원 7명 복직

전공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순천시 공무원 7명 전원이 복직했다. 순천시는 13일 인사를 통해 전공노 활동으로 파면·해임됐던 공무원 7명을 회계과, 환경보호과, 생활지원과, 도로과, 교통과, 상수도과, 농업정책과에 각각 발령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순천시 공직사회에 갈등을 불러온 전공노 공무원 문제가 마무리됐다.

복직된 전공노 소속 순천시 공무원 7명은 지난 2006년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뒤 시청 안팎에서 복직 시위를 벌여 법원 판결을 받고 순천시에 재직하고 있다.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 과정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지광기자 light64@kwangju.co.kr

‘빙판길 시비’ 택시기사·승객 주먹질 ○“빙판이 된 도로가 위험하니 좀 말려달라 돌아가지”는 택시 기사와 이에 불만을 품은 승객이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1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W마트 앞에서 택시 운행 경로를 놓고 시비를 벌이던 승객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승객 K(49)씨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방림동에서 백운동을 향해 가던 중 “같이 미끄러워 언덕을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으니 돌아가자”는 말에 K씨가 불만을 표시하자 주먹으로 K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 ○이에 승객 K씨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응수하며 김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입 실기고사 ‘뜨거운 열기’ 13일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정기 모집 내군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텀블링을 선보이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 순천만 철새 18마리 의문의 죽음

## 흰뺨검둥오리 등 ... 순천시 원인 조사 나서

순천만에서 월동 중인 일부 철새들이 폐사한 순천시가 원인조사를 나섰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순천만 일대에서 흰뺨검둥오리 등 오리류 18마리가 습진 채 발견돼 이들 사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

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부검결과 외상이 전혀 없어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7종의 농약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폐사 원인을 밝혀낼 수 있

을지는 미지수다. 순천시는 일단 조류들의 소화기에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동물보호요원 4명중 1명만이 동물구조관리센터와 순천만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어 5일 후면 구체적인 폐사 원인이 확인 될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독극물을 놓을 경우 인력이 부족해 감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기자 light64@kwangju.co.kr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062)222-8446 H.010-3886-8448

Table with columns for property types (아파트, 주택, 토지) and their respective prices and locations.

Public notice or advertisement regarding property and legal matter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a law firm.

합병공고 (제천지 이외 및 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태진건설 (이하 "갑")에서는 2009년 01월 09일 주식회사 대영전력(이하 "을")에서는 동년 동월 09일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결과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폐쇄기업으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제천지 및 주주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가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9년 01월 13일 "갑" 주식회사 태진건설 전북 김제시 신흥동 138 대표이사 김미진 "을" 주식회사 대영전력 전북 김제시 복면 송부리 454-1 대표이사 윤영민

유네스코 인정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정규대학교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인영남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 주필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5일 1월 5일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이길호 교수 서울 중로, 분당 출강!! 이우철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장경준 교수 현, 세우사 9년 세배 강의!! 227-8003 971-0002